

중국어교육에서 자본위 이론의 적용가능성 탐색*

박경송**

◁목 차 ▷

- I. 머릿말
 - II. 자본위 이론과 자본위 교수법
 - 1. '자'를 기본 단위로 하는 자본위 이론
 - 2. 자본위 교수법
 - III. 국내 중국어 교육에서 자본위 적용 가능성 탐색
 - IV. 맺음말
-

I. 머릿말

필자는 중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대중들이 늘어나면서 좀 더 쉽게 배우고, 학습하기를 기대하지만, 대학 교육에서만 보자면 한 학기 혹은 단 기간을 학습하고는 어렵다고 포기하는 학습자들을 대면할 때면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하게 된다. 외국어로서 중국어는 발음이 어렵다, 한자가 어렵다, 성조가 어렵다 등 그 이유는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좀 더 적합한 교수법을 개발하거나 수용하여, 학습자들이 쉽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필자는 '자본위 이론과 도상성(2010)'에서 자본위 이론을 이해하고 한자의 도상성을 규명하면서, 이를 한국인 중국어 교육에도 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한 지금까지 대학의 중국어 교육, 특히 초급 수준의 중국어 교육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특히 초급 중국어 교수 학습에서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영산대 중국학과 조교수

한국인 학습자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 교수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에서 자본위 이론에 대하여 많은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으며, 이 이론을 적용한 새로운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¹⁾ 국내에서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를 위해서 자본위 이론을 교수법에 적용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의 자본위 이론이 어떠한 방법으로 교수법에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학습법이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적용가능성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II. 자본위 이론과 자본위 교수법

1. ‘자’를 기본 단위로 하는 자본위 이론

‘字本位(Sinogram-based unit)’란 중국어 기본 구조 단위는 ‘字’이며, 즉 중국어 “음운, 어휘, 의미, 통사론” 각 층위의 기본단위를 ‘字’에 둔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徐通鏞이 1991년 〈語義句法芻議〉에 처음 발표한 이래로 1990년대 후반부터 학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徐通鏞(1998)은 ‘字’는 중국어의 서사단위이자 중국어의 기본단위이며, 한자는 중국어의 구조를 그대로 기록하고, 구조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자를 서사단위로 字形을 연구하는 문자학의 범위에서 다루었다면, 徐通鏞은 언어단위로서 ‘字’는 부호화를 거쳐 전달 내용이나 의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각 층위에서 기본단위로서 음운론, 어휘론, 의미론, 통사론 모두 ‘字’를 기본단위로 삼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우철(2009:286쪽)이 지적한 것처럼 자본위 이론은 중국인의 시각으로 중국어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술하는데 좀 더 적합한 이론을 찾고자 한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의 기존의 언어관을 되짚어 보는 동시에 서양의 언어 이론에서 중국어의 특징

1) 徐通鏞의 자본위 이론이 중국의 외국인 대상 중국어 교육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이후로 보이며, 中國知網을 이용해서 “자본위와 중국교육학”을 주제로 검색해 보면 지금까지 석박사 논문과 일반논문을 포함해서 약 45여 편이 검색된다.

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이론²⁾을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徐通鏞의 자본위 이론은 중국어 전통 언어 연구방식³⁾과 인지 언어학에서 언어의 형태와 그 형태가 나타내는 사물 간의 유사성, 언어의 형태와 의미 간에 보이는 유사성, 언어구조와 개념구조 간의 유사성을 연구하는 도상성(臨摹性)이론⁴⁾을 결합하여, 중국인의 세계관과 언어 표현 형식의 특징을 중심으로 언어를 연구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언어의 도상성 관점에서 언어구조를 이해하기 때문에 언어 기호와 의미의 유연(有緣)⁵⁾관계를 밝혀내어 한자 의미와 통사적인 의미 관계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졌다. 이러한 장점에 근거하여 외국인 대상 중국어 교육 현장에서 점차 이 언어학적인 접근 방법을 적용하는 자본의 교수법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이론이 발표되자 처음엔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지만, 산둥교육출판사(山東教育出版社)에서 자본위 이론이 발전 가능성을 가진 언어 이론이란 판단아래, 2005년 4월 제남(濟南)에서 “漢語字本位研究叢書”편집모임을 갖게 되었다. 이 자리에 徐通鏞, 潘文國, 戴汝潛, 魯川, 呂必松, 孟華, 汪平, 楊自儉 8인이 참여하였고, 이후 《漢語字本位語法導論》(徐通鏞), 《字本位理論與應用研究》(楊自儉), 《文字

- 2) 徐通鏞(1991:247-250쪽, 1994:11-14쪽)은 ‘字’의 형태와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퍼스(Perice) 이래 서양의 인지언어학의 방법론인 도상성(徐通鏞의 자본위 이론에서 臨摹性(iconicity)은 도상성으로 통일하여 사용함) 원칙을 응용하여 중국어 의미통사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주장했다. 그는 언어 기호의 본질적인 관점에서 기호의 자의성보다는 도상성이라는 비자의적인 속성을 설명하고자 퍼스의 기호유형론을 적용하여 중국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3) 중국 전통 언어분석 방식으로는 小學을 들 수 있으며, 소학은 성운학, 문자학, 훈고학 분야로서 한자를 기본단위로 하는 분야이다.
- 4) 성장섭·김광현(2001)에 의하면 도상성이란 형태로 나타나는 언어 표현과 의미를 따지는 관념의 구조 사이에는 서로 대응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언어구조에는 화자가 가진 경험의 구조, 더 나아가 화자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인지적 관점까지 포함한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임지룡(2004)은 도상성은 인간의 경험과 경향성이 언어 구조에 반영됨으로써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설명력을 갖는다. 특히 중국어는 표의문자인 한자의 형태와 의미 간의 유연성(중국에서는 理據性이라고 한다)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의미를 중심으로 도상성의 원리에 따라 언어구조와 개념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졌다.
- 5) 자본위 이론에서 유연(有緣)관계는 “이거(理據)”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본문에서 이거(理據)는 유연성(有緣性)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論》(孟華), 《漢子信息語法學》(魯川, 王玉菊), 《字本位與語文課程教育》(戴汝潛) 등 자본위 이론을 기반으로 각 관련 분야에서 연구 출간되었으며, 상당한 분량의 연구 논문들이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⁶⁾

국내에서 徐通鏞의 자본위 이론을 소개하고 분석한 논문은 대략 6편으로 아직은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박영록(2005)은 중국어 통사구조의 유연성(理據)의 개념을 분석하였고, 자본위의 기본구조, 의미통사론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우철(2004, 2006, 2009)은 자본위에 대한 이해, 도상성과 有緣性 등을 분석하였다. 이주화(2006)는 중국어 형태론 영역에서 자본위론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중국어가 고립어라는 것에서 자본위론은 설득력을 가지기는 하지만, 아직 언어 이론적 분석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경송(2010)은 자본위 이론의 도상성에 기초하여 ‘字’⁷⁾에 대한 有緣性정도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중국어 통사론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문장 단위, 구조 원리와 문장성분, 그리고 품사 등에 익숙한 우리에게 자본위 이론의 용어와 분석법은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며,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자본위의 기본단위인 ‘字’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로는 陳萍(2006:41쪽)은 고대 중국어의 기본단위가 한자였으나, 1898년 『馬氏文通』을 대표하는 서양 어법분석 방법을 도입한 이래로 한자에 대한 가치가 무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전통의 한자와 중국어 교육은 “자본위”를 근거로 하였으며, 또한 한자와 중국어의 인지규율을 학습하는 것에도 부합하는 단위라고 하였다. 施正宇(2010:106쪽) 또한 청말민초 한자의 라틴어화와 1950년대 이래 중국의 외국인 중국어 교육에서 字를 기본으로 의미 중심 교육을 소홀히 하고, 어법 중심으로 문장구조를 형태소, 단어, 문장으로 연구하게 되어, 지나치게 구어교육에 치중하여, 서면어 교육을 등한시

6) 王駿(2006:25쪽)에 따르면 2001년 이전 자본위 관련 저서는 《語言論》(徐通鏞)1권과 논문은 30편 정도였으나, 이후 4, 5년 간 저서가 4~5권에 논문은 60편에 달하였고, 자본위 이론 연구 영역뿐만 아니라 응용언어학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7) 徐通鏞(1997:295-298쪽)이 ‘字’를 중국어 기본구조 단위로 둔 것은 ‘字’의 형태와 의미의 유연성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어는 ‘字’를 통해서 현실 현상이 기호화 과정을 거쳐 언어에 투사되며, 이것은 중국인의 사유방식인 “비류취상(比類取象)”과 “원물비류(援物比類)”라는 직관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중국어 ‘字’에 투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한 것을 지적하며 '字'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漢字를 기본 단위로 하는 자본위 이론을 응용한 자본위 교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자본위 교수법

앞 장에서 자본위 이론은 언어의 도상성 관점에서 언어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라면, 자본위 이론을 응용한 자본위 교수법은 외국인 대상 중국어 교육현장에서 字와 의미의 유연(有緣)관계, 字와 字의 의미적 관계, 도상성을 이용한 중국어 통사적인 의미 관계 등에 대한 교육적 적용 가능성과 효과를 예서 더 많은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자본위 교수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발전하고 있다. 하나는 徐通鏞의 자본위 이론을 근거로 한 교수법이며, 다른 하나는 徐通鏞과 같은 시기에 전혀 다른 지역인 프랑스에서 벨라센(1989)이 프랑스인 중국어 학습자를 위해서 제시한 자본위 교수법이다.

1) 자본의 이론과 한자교육

한자는 외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우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특히 비한자문 화권 학습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중국어 교육에서 한자는 대개 단어 교육의 일부분으로 자형과 발음에 치중하고, 한자의 인지와 기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이 어렵다. 반면에 자본위 교수법은 한자 교육과 중국어 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내용은 한자의 표의성, 즉 형태와 의미 관계에 대한 유연관계를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한자를 인지하고 기억하는데 용의하도록 하였다.

중국인들의 사물이나 현상을 인지하는 방식이 표의자인 한자에 반영되어 있어, 한자 교육을 통해 중국어 학습의 능률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자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상형성을 가진 독체자의 자형과 의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心 xīn'은 갑골문은 ⁸⁾으로 심장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자이

8) 갑골문은 중국 사이트 <http://www.zdic.net>에 근거한 자형이다.

고, ‘牛’는 갑골문  으로 소의 뿔을 본뜬 상형자이며, ‘果guǒ’는 갑골문  으로 나무에 달린 열매를 나타낸다는 자형과 의미의 결합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다음은 두 개 이상의 뜻이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로 생성된 합체자로 예를 들면, ‘休xiū’는 사람과 나무를 연결지어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쉬는 모습”과 ‘휴식하다’는 의미의 유연관계를 설명하면 된다. 한쪽은 뜻을 다른 한쪽은 음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조합된 형성자의 유연관계에 대해서 周巧(2011:76쪽)는 다수의 한자가 형성자이며, 아직은 어느 정도 표의와 표음의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형성자를 분석 귀납하며, 학습자들이 자형을 인지하고 기억하며, 자형과 자음, 자의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한자의 표의성을 통해서 일정한 한자 구성규칙을 설명하며, 중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본위 이론이 한자교육에 응용된 것이다.

陳雪平(2010:157-158쪽)에 의하면 《現代漢語常用字表》에 수록된 상용자 3,500자는 200만여 언어자료와 한자 일치도가 99.48%이며, 이 중에 1급 상용자 2,500자는 일치도가 97.97%이다. 이것으로 보면 적어도 2,500자 고빈도 한자를 익히게 된다면 일반 서적을 해독할 수 있어, 자본위 한자교육은 어휘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存款(저축하다)”를 단어로만 학습하고, 동목구조인 ‘存(저축하다)’와 ‘款(돈)’의 의미를 모르면 “*他存款了一千元”⁹⁾라는 문장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니, 학습자들에게 먼저 한자를 학습하게 하는 것이 중국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은 徐通鏞을 중심으로 한 자본위 이론을 응용한 자본위 교수법이라면, 이보다 이른 시기에 프랑스에서 벨라센과 張朋朋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위 교수법”이 출현하였으며, 1992년 중국에서 張朋朋이 〈詞本位教學法與字本位教學法的比較〉 논문에서 자본위 교수법을 소개하였다.

몇 년 전 安子介선생이 외국인 중국어 교재를 출판하였는데, 중국어를 한자부터 가르치는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한자를 중국어 교수 학습의 기본단위로 설정하였다. (나는 이 방법을 “자본위교수법”이라고 칭한다) 예를 들면 “我去商店” 문장에서 “商店”이란 단어를 먼저 “商”과 “店” 두 한자를 나누어 교수한다. 먼저 두 자

9) 정문은 “他存了一千元”이다.

의 자형, 자음, 자의를 설명하고, “商店” 단어를 교수한다. 한자는 표의문자이며, 한자는 기본적으로 각각 하나의 형태소를 대표하며, 수많은 형태소들은 일정한 조어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商”은 “商人, 商場, 商業, 商品, 商船, 商會” 등으로 “店”은 “鞋店, 肉店, 鐘表店, 服裝店, 茶葉店”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유럽처럼 비한자 문화권에서 중국어 교육은 한자교육이 가장 어렵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¹⁰⁾ 이어 논문 후반에 張朋朋과 벨라센이 편찬한 《漢語語言文字啓蒙 I II》(1989)을 소개하면서 출판 후 매년 5천여 권 판매량을 기록하며 프랑스 역사 이래 중국어 교재로서는 베스트셀러의 기록과 동시에 프랑스 중국어 학회의 호평을 받았다고 소개하였다. 중국에서 이 교재가 소개됨으로서 한자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후 《漢語語言文字啓蒙 I II》(1989) 중국어 교재가 1997년 중국에서 번역 출간되어 중국의 자본위 교수법에 영향을 미쳤다.¹¹⁾

앞서 徐通鏘의 자본위 이론을 응용한 교수법과 자본의 교수법은 徐通鏘(2001:32쪽)이 말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지역, 연령, 계층, 영역이 다른 학자들 간에 전혀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어 구조 속에서 字가 차지하는 영역을 고찰하여, 학술적 연구로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이미 성숙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듯이, 이후 2000년대 접어들면서 자본위 이론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발휘하면서 원칙적인 기본원리와 방법론이 일치되어지고, 상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²⁾

- 10) 일례로 외국학생이 부식상점에서 “계란 엄마(雞蛋媽媽)”를 샀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계란”이란 어휘만 배우고 “닭(雞)”을 배우지 않은 한 외국학생이 “雞蛋 jīdàn”이 영어로 “hen’s egg”이니, 단어로만 익힌 학생에게는 당연한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만약 계란(雞蛋)이 닭(雞)과 알(蛋)이란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賈穎, 2001:78쪽)
- 11) 張朋朋은 이후 “구어와 문어는 따로 분리해서 교육한다(語文分開教學)”는 이론을 반영한 교재 세 권을 편찬하였다. 이중 《新編基礎漢語·口語篇, 口語速成》는 회화 학습교재이며, 《新編基礎漢語·寫字篇, 常用漢字部首》는 한자학습 교재, 《新編基礎漢語·識字篇, 集中漢字》는 750개 한자를 25과로 나누어 수록하고 매 과마다 사용빈도가 높고 글자구성능력이 뛰어난 30개의 한자를 학습하도록 한 교재이다.
- 12) 2004년 12월 청도 중국해양대학에서 개최된 “全國首屆漢語‘字本位’理論專題研討會”에서 국내 각 대학, 연구기관에서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두 가지 토론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字本位” 기본이론 연구이며, 다른 하나가 바로

2) 자본의 이론과 어휘교육

자본위 교수법에서 한자 교육은 어휘 교육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본위 어휘교육은 학습자들에게 단어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徐通鏘(2008:148-150쪽)은 한자를 기본단위로 하면서 ‘字’와 ‘字’를 결합한 자조(字組)라는 단위를 설정하고 있다. 두 자 이상의 한자가 결합하여 한 단위의 의미를 형성하는데, 이것을 교수학습에 절절히 활용하여 어휘력 향상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자본위에서 중국어 어휘생성 기제의 핵심인 字組는 핵심자를 중심으로 내심구조(向心)와 외심(離心)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내심구조는 핵심자가 의미유형을 대표하며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고, 모호한 의미를 지니며, 앞 자의 의미에 포함된 의미 특징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字의 기능과 의미자질을 분석하여 字組의 有緣관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

핵심자의 위치에 따라 내심구조와 외심구조의 분석으로 梁鏘(2008:9쪽, 13쪽)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1) 白水 踩水 缸水 開水 口水 死水
- 2) 水表 水兵 水車 水道 水花 水路

여기에서 ‘水’이 핵심자이며 字組의 계족(系族)이다. 1)은 핵심자 ‘水’가 뒤에 위치하는 내심구조로서 핵심자는 의미장의 意味類를 대표하고, 이 字組의 의미 범주와 소속을 나타낸다. 그래서 의미의 중점은 ‘水’에 두고 있으며, 이 字와 결합한 앞의 자는 핵심자 ‘水’의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의미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2)는 외심구조로서 徐通鏘은 어휘의 의미구조에서 의미의 중점이 字組 중의 뒷 字에 있으며, 외심구조처럼 핵심자가 앞에 있을 경우 이 자의 기능은 뒷 字가 대표하는 의미류의 의미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手表”의 의미 중점은 ‘表’에 있으며, ‘水’는 ‘表’를 제한하는 의미류이다.

중국어 어휘교육은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다른 중국어 교육 영역에 비해서 연

자본위 이론의 응용연구에 대한 것이었다.(王駿, 2006:33-34쪽)

구 성과가 부족하며(李彤, 2005:9쪽), 이것은 오랫동안 중국의 외국인 중국어 교육에서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은 어법구조가 교육의 중심이었으며, 어휘교육은 외국인 중국어의 학습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賈穎, 2001:79쪽)

하지만 자본위 이론은 대외한어 어휘교육에 강력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이에 대하여 劉曉梅(2004:7쪽)는 자를 기본 단위로 중국어 어휘교육에 응용한 것을 자본위 교수 학습이라는 교육이념이라 하였으며, 중국어 어휘의 파생기제의 핵심이라 보았다. 체계적인 어휘 교육 방안은 학습자가 새 단어를 익히는 시간을 단축하고, 중국어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王駿(2005:39쪽)은 자본위 이론을 활용한 수업¹³⁾의 실례 분석을 통하여 이를 정량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중국어 어휘교육에서 학습자의 어휘 기억에 부담을 줄이고 어휘습득의 효율성을 높이며, 나아가 학습자의 단어의미를 예측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적합한 교수방법이라는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자본위를 응용한 어휘교육과 관련해서 이우철(2004)은 한자문화권이란 장점을 이용하여 한자의 특징을 적절하게 교육한다면 효과가 클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한자의 도상성 원칙을 이용한 중국어 교수 방법을 제안하였다. 문어교육에서 서면어 문장이나 시사문, 축약어에서 자본위는 아직 이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나 교육과정에서의 적절한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주화(2006:114쪽)는 자본위설을 중국어 교육에 어떻게 자본위설을 중국어 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서 어휘교육에 국한시켰고, 이 또한 詞本位설에 근거해서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자 교육은 한자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가, 혹은 정확한 의미와 독음에 집중되기 때문에 ‘字’는 중국어 기본 단위이지만, 듣기, 말하기, 문법, 작문 등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현재 중국어 교육은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을 중심으로 교수하고 있다. 이 교육법은 언어의 기능 중에 듣기, 말하기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여 교육하는데 유익한

13)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는 화동사범대학 대외한어반 중국어학과 한국과 일본 유학생이며, 학습정도는 2학년 2학기 초중급단계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들로서, 참여 학생 50명을 A반과 B반 각각 25명으로 나누어 한 학기 동안 실험한 결과이다.

교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어의 중·고급단계를 교육할 때는 읽기 쓰기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 중국어능력 시험(新HSK)은 이전 구 HSK초중등 단계의 시험에서 없었던 작문 시험 부분이 있어 학생들이 중국어를 학습하는데 쓰기의 비중이 더욱 커졌다. 한국의 중국어 학습자들이 한자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라서 중국어 한자¹⁴⁾와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보다는 잘 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더욱이 중등학교의 한자 교육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서 한자문화권의 우위가 중국어 교육에 이점으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다.

Ⅲ. 국내 중국어 교육에서 자본위 적용 가능성 탐색

- 1) A * 我睡覺了六個小時時 → A' 我睡了六個小時.
- 2) B * 我想見面他. → B' 我想跟他見面.
- 3) C * 我應該在哪兒簽字我的名字. → C' 我應該在哪兒簽我的名字.

위와 같은 A, B, C, 문장에서 표현상의 오류는 중급과정의 학습자들에게서 간혹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어 문법에서 이합사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연유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중국어 초급 회화교재에서 이들 이합사는 새 단어 항목에서 睡覺 (동)잠자다, 見面 (동)만나다, 簽字 (동)서명하다 등으로 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한 단어로만 인식하여 위와 같은 표현상의 오류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단어를 다시 睡 shuì (동)자다, 覺 jiào (명)수면, 見 jiàn (동)보다, 面 miàn (명)얼굴, 簽 qiān (동)서명하다, 字 zì (명) 등으로 학습하게 한다면, 한자의 단어 조합을 이해하게 되어, 중급 수준에서 이합사의 활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근래 많은 중국어 학습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어휘력 향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14) 오래 전 한문 문장을 해독하기 위한 학습법으로 먼저 한자의 자형과 음, 뜻을 익히고, 다음으로 한자와 한자가 결합된 한자어의 의미를 이해하여 한문 문장을 해독하는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이 한 글자의 음과 훈의 의미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본위 학습법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있다. 한 문장에서 생소한 어휘가 출현했을 때 의미를 알지 못해 긴장하거나, 혹은 재빨리 사전을 찾는 경향이 있다. 중국어 어휘 교수법에서 생소한 단어가 출현해도 한 두 한자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자형으로 대충 추정해서 대략의 의미를 조합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학습자들은 처음 대하는 어휘에 대한 한자의 의미를 추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힘들어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중국어 학습법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중국어의 유창성에 중점을 두어 교수 학습하여, 중국어 듣기, 말하기 교육을 우선하고, 읽기와 쓰기 교육을 소홀히 하는 교육 환경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와 같이 한자어를 사용하는 한자문화권에서 자본위 교수법을 반영한 학습교재가 아직 없는데, 비한자문화권인 프랑스에서 중국어 교수법을 제시한 교재가 편찬되었는데, 우리가 고민하는 한자와 중국어 교육을 연계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될 만한 책이었다. 지난 학기 중국어 교수와 학습에 길잡이 역할을 했기에 자본위 교수법을 대표하는 교재로 앞에서 이미 언급한 조엘 벨라센(白樂桑 Joël Bellassen)과 張朋朋의 공저인 《漢語語言文字啓蒙 I II》(1998)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¹⁵⁾ 이 교재는 서명에서 중국어와 한자를 함께 교수·학습할 수 있는 교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벨라센이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표의문자인 중국어의 특성에 착안하여 프랑스인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하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다. 여기서 바로 “자본위 교수법”이란 용어를 제시하였다.

저자는 먼저 상용 한자편방 부수 92개와 그 뜻을 제시하였고, 다음 장에 상용자 400개를 제시하였는데 王若江(2000:95쪽)에 따르면 이 상용자 400개로 본문에서 사용한 단어는 무려 1,586개라고 하였는데, 한 한자를 습득하면 거의 4배에 해당하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우리는 이 교재에서 상용자를 얼마나 효

15) 벨라센(1996:98-99쪽)은 본인이 재직 중인 프랑스 제7대학 동아시아언어문화대학 중문과에서 사용하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초급교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장단점을 평가하면서 학습자의 한자에 대한 기억과 중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본위를 중심으로 하는 교재를 편찬하게 된 연유를 소개하였다. 이 교재는 한자 빈도와 단어 빈도를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어 교육 학습의 기본 단위가 한자(한자빈도, 새로운 한자와 기존 학습한 한자로 구성된 합성어, 새 한자의 자원과 구조, 한자의 필사체 등) 라는 것이 이 교재의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에서 1998년에 출간되었으며, 본문에서는 이때 출간한 책을 참고하였다.

을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이 상용자의 기억과 인지를 위해서 한자의 자원(字源)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한자와 중국어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관시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중국어 교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특징이다.¹⁶⁾

이 교재는 중국어의 개별성에 중점을 둔 구어와 문어를 적절히 익힐 수 있는 본문 부분과 “자본위 교수법” 기반으로 하는 한자의 字源, 部件 구조, 한자 결합원칙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프랑스인 학습자들이 중국어의 특수성에 입각해서 기본단위를 한자로 하여, 한자 기호의 특징인 도상성에 의거하여 한자의 단어 확장을 통해서 기억의 편의를 도모하고, 한자의 필순, 부건, 자원(字源)을 통한 有緣 관계를 밝혀 비한자문화권 중국어 학습자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자본위 교수법의 핵심이다. 즉 한자와 단어의 의미적 관계를 이해하여, 교재 한 권에서 발음, 어휘, 한자, 문법, 문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상성을 근거로 한 자본위 교수법을 제시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자표현

大 dà big, to be big, adult 大小, 大人, 人大

本 běn root, origin 本人, 本國

美 měi beautiful, to be beautiful 美人

2) 한자기억기술

大 필순

부건 人+一 “person”+“one”

자원  a person stretching his arms outward

16) 한 과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본문 - 회화본문(회화체) 문어체(서술체) 필기체(서사형식)

새 단어 - 새 단어 기능 배열,

한자 - 한자 주음, 상용자 해석, 확장 단어

쓰기 - 필획 쓰기, 한자부건 구분 및 결합구조, 고문자 자형, 자원설명

주석 - 문형 설명 및 허사용법

운용 - 변환 연습

문화 - 중국 문화 소개

本 필순

부건 木 + 一 “tree”+“one”

자원  a tree, marked at its roots

美 필순

부건 羊 + 大 “sheep”+“big”

자원  a person wearing a sheep mask

陸儉明(2011:228쪽)은 자본위 이론에 줄곧 반대하고 있으나, 이 교재에 관해서는 서양 중국어 학습자에게는 벨라센의 자본위 교수방법이 확실히 사본위 교수방법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하였다. 자본위 교수법은 서양 학생들에게 미지의 한자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학습자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였다.

필자는 지난 학기에 중국어 쓰기 교육 강좌¹⁷⁾에서 이상의 자본위 이론과 교수법을 바탕으로 벨라센의 자본위 교수법을 참고하여,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 대상 자본위 교수법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현재 한국에서 출판되는 중국어 교재는 거의 모두 “사본위(詞本位)”를 기본으로 하는 회화교재일 뿐만 아니라, 근래 나온 교재 중 각 과의 마지막 장에 한자 쓰기 연습부분이 첨부된 것이 나오고 있지만, 한자 교수와 학습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자료이며, 자본위 교수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교재를 찾지 못했다. 시험적으로 시행한 수업은 말하기, 듣기, 읽기 수업을 보조해주는 한자 쓰기를 위주로 한 교육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대상 학습자는 1학년 1학기 초급 중국어 학습자이며, 참여 학생은 모두 37명이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자본위 이론을 한자교육에 적용해보고자 먼저 국내에 나와 있는 한자 학습교재를 조사하여¹⁸⁾ 그 중에서 진명출판사 편집부 《한마디한마디 중국

17) 본 대학 올해 교과개정을 거쳐 처음으로 1학년 중국어 관련 강좌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4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원어민 교수를 중심으로 듣기와 말하기 강의를 진행하고, 한국인 교수를 중심으로 읽기 수업은 기본 문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쓰기 수업은 한자 교육을 진행하였다.

18) 노수미·이상도(2011)은 한국의 간체자 학습교재는 한자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간체자 교육방법은 거의 반영되지 않으며, 전통적인 방식인 한자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어간체자 야무지게 끝내기》(2008)를 채택하였다. 이를 교재로 선택한 것은 국내에 출간된 간체자 학습 교재 가운데 이 교재 머리말에 제시된 것처럼 한자와 중국어를 따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낱 한자만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하나의 단어로, 혹은 문장 속에서 한자를 익히는 것이 효과적이고, 생활회화에 접목하여 한자를 학습하는 의도에 힘입어 선택하였다. 기초적인 문형에서 기능 위주의 한자를 선정하여 어휘, 어법, 한자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의도한 교재이다. 수록자 배열은 기초적인 생활회화 순서로 배열되어, 이 한자를 배워서 말하기, 읽기 교육과 연계되어 있어 한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국어 회화 문장에서 새 단어와 해당 한자를 학습한 후 중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강좌에서 반복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단어를 기억하는데 용의하게 하였다.

이 교재는 한자의 필획은 수록되어 있지만, 편방과 부건에 대한 제시가 없어서 한자의 형태와 의미 관계를 유연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수업의 자료로 자형의 변화를 갑골문과 금문, 예서, 간체자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에게 부건을 분석하도록 유도하여, 이 부건의 유연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자분위 이론의 주 테마인 인지의미론에서 제시한 형태와 의미의 연관관계를 제시하는 도상성 관점에서 기호를 해석하여, 학습자들이 한자를 외우는 단계에서 분석하고 형태와 의미의 유연관계를 통해서 훨씬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제1단원에는 인칭대명사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먼저 “我們是朋友”문장에서 단어 “朋友”의 발음을 익히고, ‘朋’과 ‘友’ 각각의 필획, 필순, 부건을 익히고, 고대 자형을 통해 자원을 소개하였다. 김은희(2011, 472-473쪽)는 고대 한자를 통해 시각적인 자극과 연상 작용으로 한자인지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현대한자 대다수의 독체자가 갑골문부터 사용되어서, 이 한자에 대한 자원에 대한 설명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형상성이 짙은 고대 한자를 통해 시각적인 자극과 연상 작용으로 한자 인지에 효과적이라 것이 수업을 통해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다.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그래도 수업을 위한 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충을 하더라도 자분위 이론에 적용된 방법으로 수업하기 위해서 최선의 교재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강의 시작 6주 후 학습자 대상 중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한자 암기가 쉽고, 타 중국어 수업에 선행 학습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특히 교재에 만족하고, 한자의 필획, 필순, 부건과 자형(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과 도상성에 근거한 자료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보충 설명한 것이 한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강의 13주 후¹⁹⁾에 학생들의 89%의 학생들이 익힌 한자가 새 단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²⁰⁾

이 한자 쓰기 수업에서 자본위 교수법으로 진행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직은 이 교수법에 대한 교수 설계와 평가 면에서 부족함을 보였다. 다음 몇 가지 교수와 평가 방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

첫째, 한자와 중국어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진행하기에는 교재의 한계성이 많았다. 이 교재는 한자 쓰기 교재이니 만큼, 중국어 문장으로 확장하는 훈련을 적절하게 할 수 없었으며, 아무래도 한자 교육에 더 치중하게 되어 처음 의도했던 자본위 교수법을 견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둘째, 다양한 보충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한자의 필획, 필순, 부건 등의 이해

19) 한 학기 한자 수업에서 대상 한자는 초급 회화 문장에 출현하는 한자이긴 하지만, 《漢語水平詞彙與漢字等級大綱》중 甲級 한자(800자)에 포함된 한자를 기준으로 하려고 했으며, 단어 활용률이 높지 않는 것은 되도록 생략하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 익히 한자는 총 254개(我韓國他哥她姐咱們去是老師女人學生的同屋朋友公司職員鄰居么時候哪儿几点多少怎樣爲介紹名字年紀業姓業姓叫劉德華金喜善爸媽難容易最快慢強弱棒差方便真貴便宜漂亮丑帥敵陌董事長這那它些衣服書包動物誰本子尺橡皮鉛筆圓珠鋼桌椅什妹弟奶爺情侶夫婦丈妻孩父母親戚家庭很小長短胖瘦高矮低忙重輕酷美麗糟糕幸運暖和涼請坐記住原涼問進不在來行够錯熱冷別動說哭送可愛惜怜怕吃喝看听玩聞有沒錢音樂衆流歌曲广播新茶水湯樂啤洒咖啡雪果米飯心藥菜蛋糖醋魚拉空急个兩件杯條袴支台瓶張双筷變化意義影視詞典雜誌報大病餃漢語英實清楚道理利寫作日洗澡臉手脚發干淨買賣)이다.

20) 한자쓰기 수업 설문지 내용은 중국어에 대한 흥미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과 한자 학습의 효과에 대한 것이었다. 설문지에 참여한 학생은 수강생 37명 중 37명이 참여했으며, 질문은 “새단어에 이미 알고 있는 한자가 나오면, 새단어의 뜻을 추측하는데 도움이 됩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도움이 된다” 6명, “도움이 된다” 27명, “도움이 안된다” 1명, “모르겠다” 3명이었다. 또한 “한자가 중국어로 사고하는데 도움이 됩니까?”에 “도움이 많이 된다”(11명), “도움이 된다”(20명), “도움이 안 된다”(1명), “모르겠다”(4명), 무응답(1명)이 나왔다. 두 번째 질문은 한자의 뜻을 이해하고 이것으로 단어의 의미로 추정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질문에 84%의 학생들이 단어의 의미 추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만으로 유사 반복되어 자칫 수업 시간이 지루해 질 수 있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한자와 중국어에 관련된 중국 문화를 관련시켜 교수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앞에서 소개한 벨라센의 《漢語語言文字啓蒙 I》와 같은 한국인에게 적합한 중국어 교재를 기대해 본다.

셋째, 학습 평가 단계에서 측정 평가지에 어떠한 내용으로 평가해야만 학습자의 이해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특히 한자의 명확한 뜻을 제시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면 한자 쓰기 평가에서 “朋”은 벗 ‘봉’이란 우리말 혼독이 있지만 중국어의 뜻은 무엇으로 정해야 하는지, 중국어 발음 péng으로 하는지 고민스러웠다. 받아쓰기 측정에서는 “péngyou de péng”이라고 불러주고 쓰게 했다.

이상에서 자본위 교수법을 활용한 한자 쓰기 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중국어 교육은 한자 교육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어휘 교육에서도 자본위 이론의 원리를 활용하여 어휘 구조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자본위 이론과 자본위 교수법의 이해를 통해서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적용하여 교육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어떠한 교수법이든지 학습자들이 중국어에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쉽게 학습하고, 전면적이고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교수자의 역할일 것이다. 설령 아직 높이 평가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외국인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활용되고 있는 자본위 교수법을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자본위 교수법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한자를 이해하고, 더 많은 어휘를 이해하고 기억하며,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향후 자본위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는 중국어 교재의 개발 등을 통해서 중국어 한자 교육과 어휘 교육에서 자본위 학습법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이를 토대로 학습의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연구가

계속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 賈 穎 〈字本位與對外漢語語彙教學〉; 《漢語學習》第24期, 2001.
- 김은희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기본한자 고찰〉; 《중국언어연구》 35권, 2011.
- 노수미·이상도 〈간체자 학습 교재의 분석 및 수록자 선정 방안〉; 《中國言語研究》第37輯, 2011.
- 박경송 〈자본위이론과 도상성〉; 《동북아 문화연구》 권25, 2010.
- 박영록 〈중국어 통사구조의 이거와 자본위론〉; 《중국문학연구》 권31, 2005.
- 徐通鏞 〈語義句法芻議〉, 《徐通鏞自選集》, 河南教育出版社, 1993.
- 徐通鏞 〈“字”和漢語研究的方法論〉; 《世界漢語教學》第3期, 1994.
- 徐通鏞 《語言論-語義型語言的結句原理和研究方法》,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7.
- 徐通鏞 〈說‘字’〉; 《語文研究》第3期, 1998.
- 徐通鏞 《基礎言語學教程》, 北京大學出版社, 2001.
- 徐通鏞 《漢語字本位語法導論》, 山東教育出版社, 2008.
- 성창섭·김광현 〈언어분석의 도상적 접근〉; 《언어과학》 제8권 2호, 2001.
- 施正宇 〈從漢字教育看對外漢語教育中的本位問題〉; 《民族教育研究》 제6기, 2010.
- 梁 瑩 〈論“字本位”思想的理論和應用〉; 《現代語文(語言研究版)》 2期, 2008.
- 王若江 〈由法國“字本位”漢語教材引發的思考〉; 《世界漢語教學》第3期, 2000.
- 王 駿 〈在對外漢語語彙教學中實施“字本位”方法的實驗報告〉; 《暨南大學華文學院學報》第3期, 2005.
- 王 駿 〈字本位與認知法的對外漢語教學〉, 華東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06.
- 王 駿 〈漢字理據及其層次性〉; 《語言理論研究》 07, 2009.
- 劉曉梅 〈“字”本位理論與對外漢語語彙教學〉, 廣東外語外貿大學學報, 2004.
- 陸儉明 〈我關於“字本位”的基本觀點〉; 《語言科學》第10卷 第3期, 2011.
- 李 彤 〈近十年對外漢語語彙教育研究中的三代流派〉; 《語言文字應用》, 2005.9.
- 이우철 〈한자특성을 고려한 중국어 연구와 교육〉; 《언어과학연구》 30집, 2004.
- 이우철 〈漢字와 中國語의 模寫性和 理據 연구〉; 《언어과학연구》 제39집, 2006.
- 이우철 〈중국어 자본위에 대한 이해와 응용〉; 《中國言語研究》 29집, 2009.
- 이주화 〈‘字本位’설에 관련된 두 가지 논의〉; 《중국어문학논집》 41집, 2006.
- 임지룡 〈국어에 내재한 도상성의 양상과 의미특성〉; 《한글》 266, 2004.
- 張朋朋 〈詞本位教學法與字本位教學法的比較〉; 《世界漢語教學》第3期, 1992.

- 張朋朋 〈談“字本位”的內涵〉:《漢字文化》第4期, 2005.
張朋朋 〈字本位”理論和對外漢語教學〉,《雲南師範大學學報》2009.
조엘 벨라센(Joël Bellassen)·張朋朋《漢語語言文字啓蒙 I》북경, 華語教學出版社,
(1997).
조엘 벨라센(白樂桑) 〈漢語教材中的文、語領土之爭: 是合併, 還是自主, 抑或分離?〉:《世
界漢語教學》第4期, 1996.
周 巧 〈“字本位”理論與對外漢字教學〉, 淮海工學院學報 第9卷 第22期, 2011.
陳雪平 〈“字本位”理論與對外漢語教學〉:《語文學刊》6期, 2010.
陳萍 〈關於“字本位”理論的思考〉,《重慶廣播電視大學學報》제18권 제1기, 2006.
진명출판사 편집부 《한마디한마디 중국어간체자 아무지게 끝내기》, 2008.

【中文提要】

本文以漢語“字本位”的理論視角,文中借鑒了徐通鏞所倡導的“字本位”語言學理論,然後介紹以法國白樂桑爲首的“字本位教學法”的漢語教學觀,並參考了《漢語語言文字啓蒙》教材的體制。由於韓國漢語教學的實踐中存在漢字難、漢語難的問題,設計了以韓國學生爲研究對象的關於字本位教學中的研究實驗,進行了一個學期的觀察和分析,針對漢字教學中應用“字本位教學法”,提出了相應的合理化的建議,主要包括對編寫符合韓國式“字本位教學法”的教材和教學的啓發。漢字的表意性和理據性都表明韓國人漢語教學應從漢字的特点出發,進一步証明了從字本位教學法入手教漢語的實踐性探索。

【主題語】

字本位, 도상성, 有緣性, 자본위 교수법, 한자교육, 어휘교육

투고일: 2013. 7. 15 / 심사일: 2013. 7. 20~8. 5 / 게재확정일: 2013. 8. 10